

P-O-X구조들 중의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 관련된 몇 가지 변인들

홍대식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삼원적 사회관계들 중의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의 효능도와 확신도에 대한 부호조합들, 관계강도 및 타인들이나 대상물의 수의 영향들이 두 실험에서 검증되었다. 두 실험에서, ++조합은 +-, -+ 및 -- 조합들보다도 예측의 효능도가 더 균형방향이었으며 예측의 확신도가 더 높았다. 다른 부호조합들보다도 -- 조합에서, p/o 관계의 예측이 p/x와 o/x 관계들의 예측보다 더 큰 균형효과를 보였다. 더 큰 관계강도는 예측의 효능도를 더욱 균형방향으로 일으켰으며, 예측의 확신도도 높였다. +-, -+ 및 -- 조합들보다도 ++조합에서 관계강도에 따른 예측의 효능도와 확신도 차이가 컸다. 타인들이나 대상물의 수는 예측의 효능도에서 균형효과를 보였지만, 예측의 확신도에서는 예언을 지지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p/x관계의 예측보다도 p/o관계와 o/x관계의 예측에서 긍정도효과가 더 컸으며, p/x관계보다도 p/o관계의 예측의 확신도가 더 컸다. 본 연구의 전제들은 각 부호의 성질차이들에 의해서 루트 논리되었다. 정적 관계는 정근과 분실의 증가와 사고증가를 일으키고 부적 관계는 회피와 무관심과 사고증가를 일으킨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p-o-x(또는 q)의 체계는 Heider(1946, 1958)와 Newcomb(1953, 1959)에 의해서 대인관계의 기본구조로서 취급되었다. 이 구조는 대인대리, 태도변화 및 대인지각의 세 가지 측면들을 함께 다루게 해준다 (Tashakkori와 Insko, 1985 참조). p-o-x 구조들에 관한 실험연구들은 중속측정척도의 면에서 구조들의 유효도, 기각도, 안정도 등의 평정연구들, 각 관계의 변화의도의 평정 연구들, 누락된 관계의 예측연구들 및 관계의 학습연구들로서 구분되며(홍대식, 1980 참조), 유효도의 평정연구들이 가장 많이 수행되어왔다. 한편, 본 연구에 직접 관련된 p-o-x 구조들 중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소수이어서 왔으며(예: Fuller, 1974; 홍대식, 19

80), 관계들의 강도에 기초된 균형이론의 수량화에 관한 체계의 모형들, 즉 Wiest(1985), Feather(1967, 1979) 및 Wallens와 Thistlethwaite(1971a, 1971b)의 모형들의 제시되고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 관련된 변인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p-o-x 구조들 중의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 관한 독립변인들로서 관계의 종류들, 관계조합의 유형들, 관계의 강도 및 대상과 타인의 수와 아울러 중속변인으로서 특히 예측의 확신도(certainty)를 다루고자 한다.

p-o-x 구조들 중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 있어서 첫번째로 고려될 수 있는 변인은 구조 내의 세 종류

의 관계들, 즉 p/o , p/x 및 o/x 의 성질의 차이들이다. p/o 와 p/x 관계들은 p 와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는 반면에, o/x 관계는 p 에 대해서 간접적 관련을 갖고 있다. p/o 관계 자체는 삼원적 사회관계들의 판단이나 예측에서 이론과 긍정도(positivity)효과로서 작용하며, 한편 이 관계의 예측은 p/x 와 o/x 관계들의 일치(agreement)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다. p/x 관계는 o/x 관계와 결합되어서 일치효과(agreement effect)를 결정지으며, 이 관계의 예측은 이 효과와 더불어 p/o 관계의 긍정도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다. o/x 관계는 p/x 관계와 더불어 일치효과로서 작용하며, p/x 관계처럼 이 관계의 예측은 이 효과와 더불어 p/o 관계의 긍정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각 관계의 예측에서 작용되는 관계들의 패턴은 Shepard, Hovland 및 Jenkins(1961)의 구분에 따라 기술될 수 있다. 즉, 삼원적 사회 관계들에서의 p/o 관계의 예측은 태도일치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p/x 관계의 예측은 소로부터의 소스 일반화(source generalization)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o/x 관계의 예측은 p 로부터의 소스 일반화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고 간주될 수 있다.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 관한 Fuller(1974)의 연구에서는 균형된 구조물로의 예측의 비율이 p/o 관계 예측(.54) p/x 관계의 예측(.57) 및 o/x 관계의 예측(.55)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 홍대식(1980)의 연구에서는 예측의 강도를 포함시켜서 p/o 관계예측은 완전히 균형된 예측이 이루어졌지만, p/x 관계와 o/x 관계는 완전하게 균형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홍대식, 1982 참조). 따라서 후자의 연구의 단편적인 자료만으로는 p/o , p/x 및 o/x 관계들의 예측에서의 균형효과의 차이를 결론지을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만 상이한 효과들이 추측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홍대식(1988)의 Fuller(1974)의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들에서 균형된 예측의 비율들이 p/o 관계에서는 .40, p/x 관계에서는 .47 그리고 o/x 관계에서는 .35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에서 p 에 대해 직접적 관계들인 p/o 와 p/x 관계들이 o/x 관계들보다 더

균형된 예측들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의 차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에 기인되었는지는 불명하다. 아마 이 세 종류의 관계들은 이하에서 논의될 부호조합의 패턴들, 관계강도 및 타인들이나 대상의 수와 상호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서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은 관계들의 조합패턴이다. p/o , p/x 및 o/x 관계들의 예측에서는 각각 두 개의 관계들의 정과 부가 제시되게 된다. 따라서 정과 부의 부호의 조합 패턴들은 ++, +-, -+ 및 --의 네 종류가 있다. 지금까지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 관한 이론들과 연구들은 이들 조합들이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은연적으로 가정하여 왔다. 그러나 네 개의 부호조합 패턴들에 대한 균형된 형태로의 관계예측은 부호 조합들이나 부호의 정과 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Fuller(1974)의 자료의 재분석은 ++조합(.74)이 나머지의 +-조합(.49), -+조합(.46) 및 --조합(.52)보다 더 큰 균형효과를 보였으며, 홍대식(1988)의 연구에서도 각각 .70, .35, .38 및 .25로 나타나서 ++조합에서 다른 조합들보다도 훨씬 더 큰 균형효과가 작용된다는 것을 보였다. 후자의 연구에서 홍대식(1988)은 이러한 효과들이 정·부 부호의 심리적 성질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홍대식(1982)의 논문에서도 이미 p/o 부호의 정·부와 태도일치여부가 각각 심리가(psychological valence)를 취할 수 있어서 정적 관계와 태도일치는 접근 반응을 일으키고, 부정 관계와 태도불일치는 회피반응을 일으킨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분석에서 홍대식(1988)은 ++구조들은 접근이나 관심을 일으키고 따라서 가장 큰 균형효과와 가장 적은 불확실감을 갖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구조들은 회피나 무관심을 일으키며, +- 또는 -+ 구조들은 -부호에 기인된 회피나 무관심과 아울러 두 부호의 상위에 의한 갈등에 의해서 --구조들과 비슷하게 균형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이론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화는 앞에서 제시된 자료들에서 지지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구조들이 나머지 부호조합 구조들보다 더 큰 균형효과들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 관련된 세번째 변인은 관계의 강도나 극단성(polarity)이다. Wiest(1965)의 모형에 대한 Wellens와 Thistlethwaite(1971a, 1971b)의 확장된 모형들과 Feather(1967)의 모형은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극단성의 부호들의 조합에서는 극단성이 클수록 균형이론의 예언방향으로의 더 큰 극단성의 예측을 일으킬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모형들에서는 ++와 --조합들간의 차이가 가정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호조합들에서 관계의 극단성이 증가될수록 균형방향으로의 더 극단적 예측들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이것은 부호조합들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서 고려될 수 있는 네번째의 변인인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는 Heider의 균형모형에서 직접 유도되지는 않는다. 이 변인은 Heider의 균형모형에 대한 홍대식(1985)의 확장모형에서 상세하게 취급되어 있다. 홍대식(1985)의 확장모형에서는 실생활에서 p/o 관계가 다수의 x들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다수의 대상들에 대한 태도의 일치들이 소수의 대상들에 대한 일치들보다도 대인매력을 더욱 크게 높여주며 태도불일치들은 이와 반대의 효과를 갖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홍대식(1985)은 p/x관계에도 p/o관계에 대한 구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타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정적 p/x 관계들은 다수의 정적 인물들과의 태도일치들로 구성되거나 다수의 부정적 인물들과의 태도불일치로 구성될 수 있으며, 부정 p/x 관계들은 다수의 정적 인물들과의 태도불일치들로 구성되거나 다수의 부정 인물들과의 태도불일치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고 가정되었다. 이러한 p/o관계와 p/x관계의 구조들에 대한 균형이론의 확장은 실생활에서의 대인관계나 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경험적 자

료들은 p/o관계나 p/x관계의 예측에 대해서 수집된 바 없다. 아마 소수의 대상들이나 타인들이 포함된 구조들보다도 다수의 대상들이나 타인들이 포함된 구조들이 만일 이것들이 동일한 부호를 갖고 있다면, p/o 관계나 p/x관계의 예측에서 더 극단적 호오도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타인들의 수와 대상들의 수는 앞에서 논의된 관계강도의 변인으로도 다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대상들의 수가 증가되면, p/x강도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고, 타인들의 수가 증가되면, p/o의 강도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타인들의 수와 대상들의 수는 앞에서 관계강도의 변인처럼 부호조합들에 따라 달리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속변인은 예측의 확실성(certainty)이나 불확실성이다. Heider의 균형모형에서는 관계의 방향만을 고려하였 으며, 관계에 대한 예측의 주관적 확실성을 취급하지 않았다. 한편, Newcomb등(Price, Harburg 및 Newcomb, 1966; Newcomb, 1968)은 정적 p/o 관계보다도 부정 p/o관계가 포함된 상황들에 대해서 불확실감(uncertainty), 양면감정성 및 비관여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지만, 그는 삼원적 사회 상황들에 대한 불확실감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으며, 그의 전자의 연구에서는 단지 유쾌도 평정치들의 중간 반응들을 검토하였다. Fuller(1974)의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 관한 연구에서도 불확실감의 지표는 예측의 중립성반응들(즉,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것이다의 반응 선택지)의 빈도에서 간접적으로 추론될 수 있을 뿐이다. 홍대식(1988)의 연구에서는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서 불확실감반응들(즉,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다)의 빈도들을 직접 얻었으며, 간접적인 o/x관계의 불확실반응들의 비율(.54)이 직접적인 p/o관계(.50)와 p/x관계(.40)의 비율들보다 더 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일 연구에서 부분 구조들에 따른 불확실감반응의 비율은 ++구조들의 비율(.29)이 가장 낮았으며, +-구조들(.54), -+구조들(.57) 및 --구조들(.52) 사이에는 불확실감반

응의 비율들이 서로 비슷하게 졌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불확실감반응의 비율과 균형반응의 비율사이애 -.86의 상관관이 있었으며, 불확실감반응과 불균형반응의 비율들간에 .38의 상관관이 있음도 발견되었다.

삼원적 사회관계들에서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 관련된 상기의 홍대식(1988)의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연구에서 예측의 방향이나 정도 뿐만 아니라, 예측에 대한 확실감이나 불확실감의 취급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시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태도의 구조에 관한 기대-가치모형, 즉 특정의 태도가 그 태도대상에 관련된 속성에 대한 평가와 그 태도대상이 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주관적 확률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Fishbein과 Ajzen, 1975 참조)에 비추어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서 호오정도는 평가의 정도를 반영할 것이며, 예측에 대한 확실감이나 불확실감의 정도는 예측의 주관적 확률을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서 종속변인으로서 취급되어 오던 예측의 호오도와 더불어 예측의 확실감이나 불확실감의 변인을 취급하고자 한다. 이 종속변인에 대한 상기에서 기술된 제 변인들의 효과는 잠정적으로 호오도예측과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종류의 면에서 p/o , p/x 및 o/x 관계들의 예측의 확실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구조들의 예측이 나머지 구조들의 예측보다 더 확실감이 높을 것이며, 관계의 강도나 수가 클수록 더 확실감이 더 높을 것이 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삼원적 사회관계들중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의 방향(즉, 호오도)과 예측의 주관적 확실감에 관한 본 연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호조합들의 면에서 ++구조들은 +-, -+ 및 --구조들보다도 예측의 호오도의 균형효과와 예측의 주관적 확실성이 더 클 것이다.

둘째로, 관계의 호오강도(또는 극단성)가 클수록

예측의 호오도의 균형효과와 예측의 주관적 확실성이 더 클 것이다. 또한 관계의 호오강도의 변인은 부호조합들의 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째로, $p-o-x$ 의 기본적 패턴 속에 포함된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가 클 수록 예측의 호오도의 균형효과와 예측의 주관적 확실성이 클 것이다. 또한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의 효과는 부호조합들의 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기본적 가설들 이외에도, 관계의 종류, 부호조합들의 패턴 및 관계의 강도나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효과들도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의 가설들을 검증하고 삼원적 사회관계들 중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실험 1 : 관계의 세 종류, 부호조합의 패턴 및 관계의 강도

이 실험은 삼원적 사회관계들 중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 있어서의 p/o , p/x 및 o/x 의 세 관계들의 차이, ++, +-, -+ 및 --의 부호조합들의 차이 및 제시된 관계의 강도들의 차이의 효과들과 그 상호작용 효과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가설들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설들이 직접 검증되었다. 더 나아가서 가설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세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들이 분석되었다.

방 법

참가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학년

학생 141명이 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호오도 평정에서 4명의 반응누락자가 있었고, 확신도평정에서 6명의 반응누락자가 있어서 자료의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들은 각각 129명과 123명이었다.

도구 및 절차

이 실험에서는 삼원적 사회관계들 중의 한 개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을 알아 보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두 개의 관계들을 제시하고 한 개의 관계를 예측하게 하였다. 이 실험에서 취급된 독립변인들은 예측된 관계의 종류(즉, p/o , p/x 및 o/x 관계들), 부호조합의 패턴들(즉, 예측의 기초로 제시된 $++$, $+-$, $-+$ 및 $--$ 의 조합들) 및 p/o , p/x 또는 o/x 의 강도("매우"와 "약간")이었다. 여기에서 $+$ 와 $-$ 는 각각 "좋아한다"와 "싫어한다"를 나타낸다. 관계의 종류는 피험자간 변인으로 취급되었으며, 부호조합의 패턴들과 관계 강도의 변인들은 피험자내 변인들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3 \times 4 \times 2$ 의 반복측정 실험설계가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예컨대, "나는 어떤 것(X)을 매우 좋아한다"와 "다른 사람(0)은 어떤 것(X)을 매우 좋아한다"와 같은 8종류의 상황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들 상황에서 "나"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0)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비슷한 연령의 동성들, 그리고 어떤 것(X)은 자신과 다른 사람(0)에게 관심있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설명되었다. 각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부호조합들과 관계강도의 조합에 의해서 8 개의 상황들이 제시되었으며, 관계강도를 표현하는 "매우"와 "약간"의 단어들 밑에는 밑줄을 그어서 참가자들이 이 단어들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였다. 상황들에서 관계의 제시순서는 p/o , p/x 또는 o/x 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관계예측의 호오도와 관계예측의 확신도의 두 가지 종속측정치들이 얻어졌다. 관계예측의 호오도는 "위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0)에 대해서, 다른 사람(0)은 X에 대해서, 또는 나는 X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한 개의 5점 척도(매우, 약간 및 중간으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기술됨)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되었다. 관계예측의 확신도는 "위의 판단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확실하거나 불확실하게 느껴집니까?"의 질문에 대한 7점 척도("매우 불확실하다"에서 "매우 확실하다"의 범위)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에서 불확실하다와 확실하다는 언어적 기술들에는 매우, 상당히, 약간, 중간의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8개 상황들은 무선적인 순서로 조사지 내에서 제시되었으며, 조사지는 강의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결 과

예측의 호오도

누락된 관계의 예측의 호오도 평정치들에서 부호조합들, 관계강도 및 관계의 종류에 따른 평균치들이 표1에 제시되어 있다. $3 \times 4 \times 2$ 의 반복측정치들의 변량분석 결과는 부호조합의 패턴들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는 것을 나타냈다 ($F(3,373)=113.91$, $p < .01$). 부호조합들간의 평균치들의 차이는 F 검정들에서 $++$ 조합(4.04)과 $+-$ (2.48), $-+$ (2.69) 및 $--$ (3.29) 조합들 사이에서 모두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으며, $+-$ 조합과 $-+$ 와 $--$ 조합들 사이에서 각각 $p < .001$ 와 .05 수준들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 와 $--$ 조합들 사이에서도 $p < .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측의 부호의 방향을 균형이론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서 평정의 중간점인 3.0을 각 부호 조합의 평균치에서 뺀 결과, $++$ 조합(+1.04), $+-$ 조합(-.52), $-+$ 조합(-.31) 및 $--$ 조합(+.29)이 모두 예측의 방향의 면에서 균형이론과 일치되었다. 한편, 이 평균치들의 절대치를 고려했을 때, $++$ 조합이 다른 조합들보다 두 배 이상 컸으며

표 1. 관계종류, 부호조합 및 관계강도에 따른 예측의 호오도의 평균치들과 표준편차들(괄호안)

부호조합 관계강도 관계종류	++		+-		-+		--		전 체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p/o 예측 (n= 43)	4.07 (.12)	3.81 (.70)	2.26 (.85)	2.93 (.70)	2.40 (.73)	3.09 (.68)	3.79 (1.06)	3.35 (.75)	3.21 (.32)
p/x 예측 (n= 43)	4.42 (.79)	3.65 (.61)	2.07 (.94)	2.70 (.71)	2.20 (1.03)	2.72 (.80)	3.19 (.96)	3.02 (.80)	2.97 (.39)
o/x 예측 (n= 43)	4.42 (.88)	3.86 (.83)	2.19 (1.22)	2.74 (1.05)	2.86 (1.37)	3.07 (1.12)	3.19 (1.53)	3.23 (1.07)	3.19 (.42)
전 체 (N=129)	4.30 (.95)	3.78 (.72)	2.17 (1.01)	2.79 (.84)	2.43 (1.12)	2.96 (.09)	3.39 (1.23)	3.20 (.89)	3.13 (.39)

나머지 조합들은 서로 비슷하였다. 따라서 예측의 호오도의 종속변인에서 부호조합들 간의 차이에 관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부호조합들과 관계종류(즉, p/o, p/x 및 o/x 관계들)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6, 378) = 2.68, p < .05$) 이 상호작용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조합과 +-조합에서는 p/o, p/x 및 o/x 관계들간의 호오도의 차이가 작은 반면에, -+조합과 --조합에서는 이들 간의 차이가 컸다. 각 조합들 내에서의 세 종류의 관계들간의 차이 검증에서, ++조합과 +-조합에서는 관계 종류들 간의 차이가 유의치 않았던 반면에, -+조합에서는 p/o관계와 p/x관계의 예측 호오도들 사이 ($F(1, 84) = 4.64, p < .05$)와 p/x 관계와 o/x관계 사이, ($F(1, 84) = 11.92, p < .001$)에서 차이들이 유의하였고, p/o와 o/x관계들간에는 차이가 유의치 않았다 ($F(1, 84) = 1.65$). 한편, --조합에서 p/o관계와 p/x관계 사이 ($F(1, 84) = 6.92, p < .05$) 및 o/x관계 사이 ($F(1, 84) = 4.16, p < .05$)에서는 예측 호오도들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p/x관계와 o/x관계 사이의 차이는 유의치 않았다($F(1, 84) = .35$). 따라서 --조합에서는

p/o관계의 호오도 예측이 다른 관계들의 예측보다도 더 균형이론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조합에서는 p/x관계의 호오도 예측이 다른 관계들의 예측보다도 더 균형이론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관계강도에 따른 예측의 호오도의 차이에 관한 가설 2에 관련된 관계강도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1, 126) = 4.37, p < .05$). 예측호오도의 평균치들은 강조전(3.07)보다도 약조건(3.18)이 더 긍정도 효과(positivity effect)가 컸다. 가설 2에 따른 관계강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관계조합들의 예측의 평균치들에서 중간점(즉, 3.0)을 빼고 각 조합들의 수치들의 절대치들을 평균하였을 때, 강조전(.95)이 약조건(.31)보다 더 극화된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관계강도와 부호조합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3, 378) = 28.09, p < .01$), 이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모든 부호조합들에서 강조전이 약조건보다도 균형방향으로 더욱 극화되었으며, --조합을 제외하고서 ($F(1, 42) = 2.69$), 모든 조합들에서 $p < .001$ 수준에서 두 조건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 +-, -+ 및 --조합들 중에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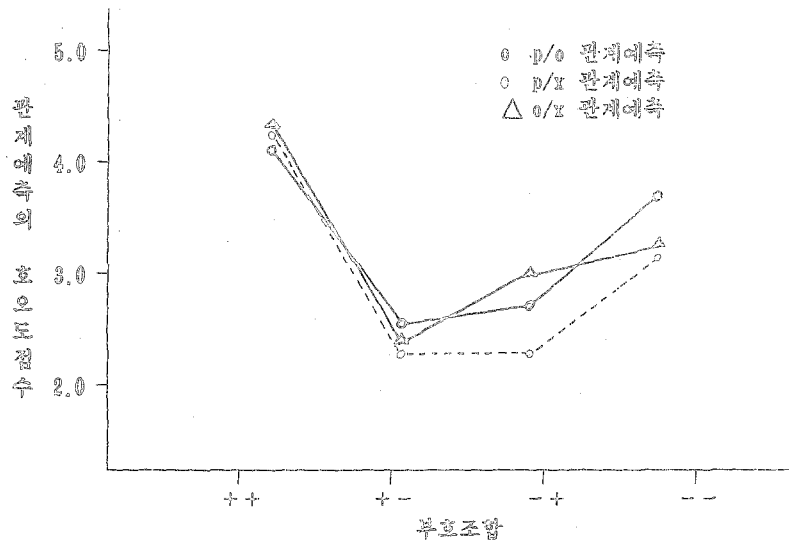


그림 1. 부호조합에 따른 세 종류의 관계의 예측의 호오도

합 판이 관계강도에 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관계의 종류들(p/o, p/x 및 o/x)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F(2, 126)=5.33, p<.01$). 전체 평균치들에서 p/x관계 (2.97)보다 p/o (3.21)와 o/x(3.19) 관계들

의 호오도 예측이 더 정적 극화를 보였으며, 이들 간의 Tukey 검정은 p/x와 p/o 그리고 p/x와 o/x 관계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각각, $p<.05$), p/o와 o/x 관계들 사이에는 차이가 유의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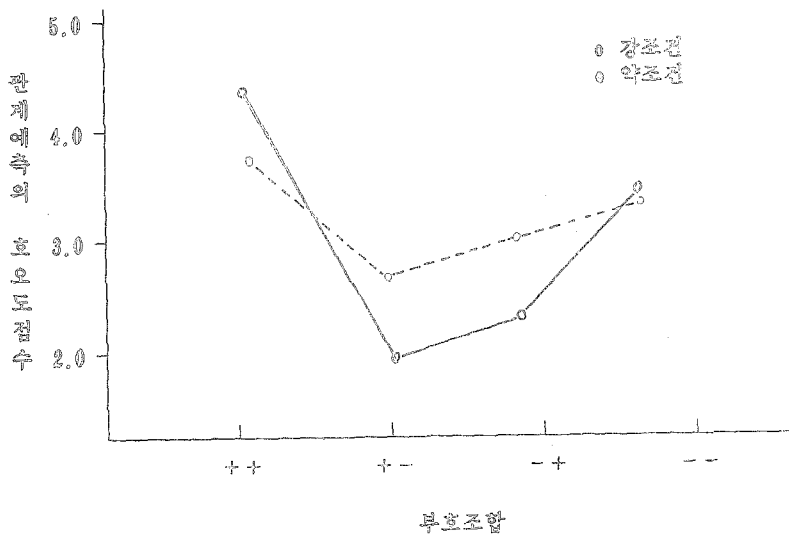


그림 2. 부호조합에 따른 관계강도(강약)별 예측의 호오도

따라서 전체 평균치들의 편에서 p/x 관계 예측에서는 균형효과가 큰 반면에, p/o 관계와 o/x 관계의 예측에서는 긍정도효과(positivity effect)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그 밖에 관계종류와 관계강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치 않았으며 ($F(2, 164)=.34$), 관계종류, 부호조합 및 관계강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도 유의치 없었다($F(6, 378)=1.98$).

예측의 주관적 확신도

누락된 관계의 호오도예측에 대한 주관적 확신도의 평정치들에서 부호조합들, 관계강도 및 관계의 종류에 따른 평균치들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times 4 \times 3$ 의 반복측정치들의 변량분석 결과는 부호조합의 패턴들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는 것을 나타냈다 ($F(3, 360) = 10.09, p < .01$). 부호조합들의 평균치들은 ++조합(4.69), +- (4.73), -+ (4.48) 및 -

표 2. 관계종류, 부호조합 및 관계강도에 따른 예측의 확신도의 평균치들과 표준편차들(괄호안)

부호조합 관계강도 관계종류	++		+-		-+		--		전 체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p/o 예측 (n= 41)	5.27 (1.12)	4.93 (.70)	4.76 (.85)	4.80 (.70)	4.71 (.73)	4.73 (.68)	5.20 (1.06)	5.50 (.75)	4.93 (.32)
p/x 예측 (n= 41)	5.24 (.79)	4.22 (.61)	4.76 (.94)	4.41 (.71)	4.56 (1.03)	4.17 (.80)	4.17 (.96)	4.07 (.80)	4.45 (.39)
o/x 예측 (n= 41)	5.61 (.88)	4.49 (.83)	4.93 (1.22)	4.73 (1.05)	4.17 (1.37)	4.54 (1.12)	4.41 (1.53)	4.17 (1.07)	4.63 (.42)
전 체 (N=123)	5.37 (1.38)	4.54 (1.41)	4.81 (1.46)	4.66 (1.29)	4.48 (1.38)	4.48 (1.33)	4.59 (1.38)	4.43 (1.40)	4.6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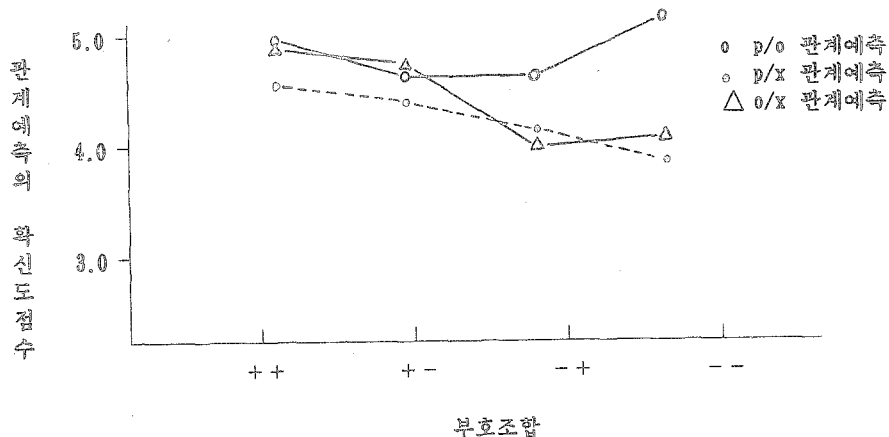


그림 3. 부호조합에 따른 세 종류의 관계의 예측의 확신도

- (4.51) 조합들 간에 크기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다. +-와 -+ 조합들의 전체 평균치(4.61)를 계산하였을 때, ++조합이 다른 조합들보다 예측 확신도가 더 컸다. 그러나 네 개의 조합들 간의 차이들은 모두 유의적 않았다. +-조합이 가장 큰 확신도점수를 보였으므로, ++조합이 가장 확신도 점수가 클 것이라는 가설 2는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 점수들은 가설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간주될 수 있다.

부호조합들과 관계종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6, 360)=3.43, p<.01$), 이 상호작용의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앞에서의 예측효율도의 상호작용효과와 비슷하게 ++와 +- 조합들에서는 관계종류에 따른 예측 확신도의 차이가 작았던 반면에, -+와 --조합들에서는 이들 간의 차이가 컸다. 각 조합들 내에서의 세 종류의 관계들 간의 차이점

등에서, ++조합, +-조합 및 -+ 조합 내에서는 관계종류들 간의 차이가 유의적 않았던 반면에,

- 조합에서는 p/o 관계와 p/x 관계 ($F(1, 80)=16.00, p<.001$) 및 o/x 관계 ($F(1, 80)=11.00, p<.01$) 사이에서 유의하였고 p/x 관계와 o/x 관계 사이에서는 차이가 유의적 않았다($F(1, 80)=.47$). 따라서 네 개의 부호조합들 중에서 --조합에서만 p/o 관계 예측의 확신도가 p/x와 o/x 관계들의 예측의 확신도 보다 더 높았다.

관계강도에 따른 예측의 확신도의 차이에 관한 가설 2에 관련된 관계강도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1, 120)=16.13, p<.01$). 평균치에서 강조건(4.82)이 약조건(4.53)보다 더 커서 관계강도에 따른 예측의 확신도에 관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예측의 확신도에서 관계강도와 부호조합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3, 360)=8.02,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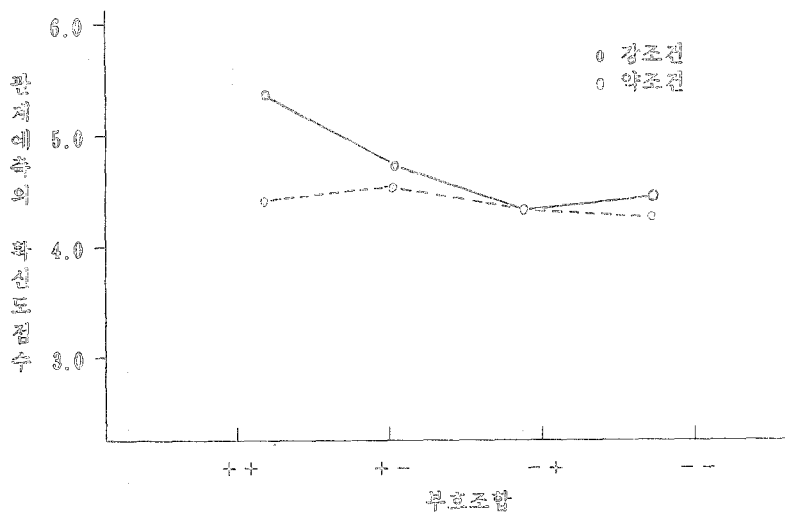


그림 4. 부호조합에 따른 관계강도(강약)별 예측의 확신도

.01), 이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앞의 예측의 효율도에 대한 상호작용에 관한 그림 2의 형태와는 달리, ++조합에서만 강조건과 약조건 간의 차이가 큰 반면에, +-, -+ 및 -- 조합들에서는 관계

강도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각 부호조합들 내에서의 관계강도의 강조건과 약건의 차이는 ++조합에서만 유의하였고 ($F(1, 40)=35.16, p<.001$), 나머지의 +-, -+ 및 -- 조합들에서

는 모두 유의치 않았다.

관계의 종류들 즉, (p/o, p/x 및 o/x 관계들)의 주효과들은 유의치 않았으며 ($F(2, 120)=2.00$), 이것은 앞에서의 예측의 호오도에 대한 효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즉, 예측의 호오도에서는 관계의 종류가 영향을 주었지만, 예측의 확신도에서는 관계의 종류가 영향이 없었다. 그 밖에, 관계종류와 관계강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치 않았으며 ($F(2, 120)=2.00$), 관계종류, 부호조합들 및 관계강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도 유의치 않았으며 ($F(6, 360)=1.57$).

는 의

삼원적 사회관계들 중의 주목된 관계의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의 면에서 ++조합이 +-, -+ 및 -- 조합들보다 더 잘 것이라는 가설 1은 두 개의 종속변인들에서 검증되었다. 이 두 개의 측정치들에서 ++ 조합이 다른 조합들보다 균형방향의 호오도 점수와 아울러 예측의 확신도의 면에서 다른 조합들보다 더 커서 가설 1은 대체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측의 확신도의 면에서 관계조합들 간의 개별비교에서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예측의 호오도와 예측의 확신도가 약간 다른 심리적 기재의 작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부호조합들과 관계종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예측의 호오도와 아울러 확신도에서 모두 유의하였는데, 일반적으로 ++, +- 및 -+ 조합들에서는 p/o, p/x 및 o/x 관계들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 조합에서만 공통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 조합에서 p/o 관계의 예측의 호오도나 확신도가 p/x나 o/x 관계들의 것들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p/o, p/x 및 o/x 관계들의 예측에서의 -- 조합의 의미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 조합은 그 자체 회피의 무관심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p/o 관계의 예측에서는 긍정적 성질의 메로일치를 의미하기 쉬우며, 따라서 회피적 및 무관심적 경향이 때

일치의 접근적 및 관심적 경향에 의해서 극복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 관계의 예측에서는 부호 조합들의 의미에서의 차이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계강도의 변인의 효과도 주목된 관계의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예측의 호오도의 면에서 강조조건이 약조건보다 더 균형된 예측이 이루어지고 약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도효과(positivity effect)가 작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예측의 호오도를 균형이론에 따라 부호를 무시하고 평정치를 평균한 결과에서, 강조조건이 약조건보다 더 큰 균형효과를 보였으며 예측의 확신도도 가설에서 예측된 방향이었으며, 따라서 가설 2는 이 두 평정치들에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균형의 정도와 예측의 확신도 간의 높은 일치를 시사해 주고 있다.

부호조합과 관계강도의 상호작용은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두 결과들에서 ++ 조합의 강조조건과 약조건 사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 조합에서만 관계의 강도에 대한 효과가 이루어지고, -- 조건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조합, 즉 접근의 부호들에서는 관계의 강도에 대한 효과가 이루어지지만, 회피의 부호들에서는 부호를 자체의 회피유발적 성질 때문에 관계강도에 대한 고려의 여유가 더 적은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강도와 관계종류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치 않은 것은 관계강도의 면에서 세 종류의 관계가 동질적이라는 것을 뜻할 것이다.

p/o, p/x 및 o/x 관계들의 예측에서 p/o 관계예측과 o/x 관계예측은 p/x 관계의 예측 보다는 더욱 정확 예측이 됐다. 이러한 결과는 p/o와 o/x 관계들의 예측에서 +방향으로의 균형효과나 긍정도효과가 힘을 나타내 준다. 예측의 확신도의 면에서, p/o, p/x 및 o/x 관계들 간에 전체적인 차이가 유의치 못했다. 따라서, 직접적 관계인 p/o와 p/x 관계들의 예측이 간접적 관계인 o/x 관계의 예측과는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가 다를 것이라는 잠정적 가정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험 2 : 관계의 두 종류, 부호조합의 패턴 및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

이 실험은 삼원적 사회관계들 중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 있어서의 p/o 와 p/x 관계들의 차이, $++$, $+-$, $-+$ 및 $--$ 의 부호조합들의 차이 및 삼원적 사회상황에 포함된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의 차이의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들을 알아 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실험 1에서 연구된 부호조합들과 관계종류의 효과들을 반복 연구하면서, 앞에서 제시된 가설들 중에서 첫번째와 세번째의 가설들이 검증되었다.

방 법

참가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학년 학생 92명이 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도구 및 절차

이 실험에서는 앞의 실험에서처럼 참가자들에게 삼원적 사회관계들 중의 두 개의 관계를 제시하고 한 개의 관계를 예측하게 하였다. 이 실험에서 취급된 독립변인들은 예측된 관계의 종류(즉, p/o 와 p/x 관계들), 부호조합의 패턴들(즉, 예측의 기초로 제시된 $++$, $+-$, $-+$ 및 $--$ 의 조합들) 및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각 1, 3, 10명 또는 종류)이었다. 관계의 종류는 피험자간 변인으로 취급되었으며, 부호조합의 패턴들과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는 피험자내 변인으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2 \times 4 \times 3$ 의 반

복측정 실험설계가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예컨대, p/x 관계의 예측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 즉 0들(3명입)을 모두 좋아한다." 그 사람들(0들)은 모두 어떤 것(X)을 좋아한다"나, p/o 관계의 예측에서 "나는 어떤 것들, 즉 X들(10종류입)을 모두 좋아한다. 다른 사람(0)은 이것들(X들)을 모두 좋아한다"와 같은 12 종류의 상황들이 제시되었다. p/o 관계의 예측에서 상황들에 포함된 X의 수는 1종류, 3종류 및 10종류로 구분되었으며, p/x 관계의 예측에서 상황들에 포함된 어떤 사람들(0들)의 수는 1명, 3명 및 10명으로 구분되었다.

이 실험에서도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계예측의 호오도와 관계예측의 확신도의 종속측정치들이 각각 5점과 7점 척도에 의해서 얻어졌다. 12개의 상황들은 무선적 순서로 조사지내에서 제시되었으며, 조사지는 강의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결 과

예측의 호오도

누락된 관계의 예측의 호오도평정치들에서 부호조합들,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 및 관계의 종류에 따른 평균치들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2 \times 4 \times 3$ 의 반복측정치들의 변량분석 결과는 부호조합의 패턴들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는 것을 나타냈다($F(3, 270) = 202.08, p < .01$). 부호조합들 간의 평균치들 간의 차이는 F검정들에서 $++$ 조합(4.04)과 $+-$ (2.34), $-+$ (2.44) 및 $--$ (3.46) 조합들 사이에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 조합과 $-+$ 조합 사이에서는 유의치 않았고 ($F(1, 90) = 1.58$), $+-$ 조합과 $--$ 조합사이에서 유의하였고 ($p < .001$), $-+$ 와 $--$ 조합들 사이에서도 유의하였다($p < .001$). 예측의 부호의 방향을 균형이론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서 평정치의 중간점인 3.0을 각 부호조합의 평균치에서 뺀 결과, $++$ 조합(1.04), $+-$ 조합(-.64

표 3. 관계종류, 부호조절 및 타이인이나 대상의 수에 따른 예측의 호오도의 평균치들과 표준편치들(팔호안)

부호조절 수	+			+			-			-			전 제
	1	3	10	1	3	10	1	3	10	1	3	10	
관계종류													
p/o 예측 (n=46)	3.91 (.94)	4.09 (.60)	4.07 (.93)	2.37 (.81)	2.52 (.81)	1.83 (.83)	2.74 (.63)	2.59 (.73)	2.15 (.84)	3.63 (.77)	3.87 (.72)	3.63 (1.88)	3.16 (.32)
p/x 예측 (n=46)	4.20 (.75)	4.07 (.60)	3.98 (.93)	2.33 (.79)	2.37 (.77)	2.13 (.62)	2.33 (.94)	2.61 (.93)	2.22 (1.03)	3.37 (.88)	3.07 (.77)	3.20 (.96)	2.98 (.19)
전 제 (N=92)	4.05 (.86)	4.08 (.60)	4.00 (.93)	2.60 (.84)	2.45 (.79)	1.98 (.74)	2.53 (.83)	2.60 (.85)	2.18 (.94)	3.50 (.83)	3.47 (.84)	3.42 (1.05)	3.07 (.27)

표 4. 관계종류, 부호조절 및 타이인이나 대상의 수에 따른 예측의 확신도의 평균치들과 표준편치들(팔호안)

부호조절 수	+			+			-			-			전 제
	1	3	10	1	3	10	1	3	10	1	3	10	
관계종류													
p/o 예측 (n=46)	5.39 (1.24)	5.37 (.97)	5.37 (1.44)	5.24 (1.21)	5.23 (1.07)	5.41 (1.20)	5.33 (.92)	4.96 (1.33)	5.02 (1.04)	5.33 (.93)	5.43 (.94)	5.09 (1.30)	5.27 (.64)
p/x 예측 (n=46)	5.37 (1.20)	5.13 (.96)	5.20 (1.02)	4.96 (1.14)	4.72 (1.13)	4.70 (1.19)	4.76 (1.37)	4.37 (1.20)	4.76 (1.48)	4.91 (1.24)	4.22 (1.26)	4.63 (1.18)	4.81 (.70)
전 제 (N=92)	5.38 (1.21)	5.25 (.97)	5.28 (1.24)	5.11 (1.18)	5.00 (1.22)	5.05 (1.24)	5.04 (1.19)	4.66 (1.29)	4.89 (1.23)	5.12 (1.14)	4.85 (1.27)	4.86 (1.25)	5.04 (.71)

), $-+$ 조합($-.56$) 및 $--$ 조합($+.54$)이 모두 예측의 방향의 면에서 균형이론과 일치 되었으며, $++$ 조합의 평균치는 실험 1과 동일한 것이었다. 실험 1에서처럼 이 평균치들의 절대치를 고려했을 때, $++$ 조합이 다른 조합들보다 훨씬 더 컸으며, 나머지 조합들은 서로 비슷하였다. 따라서 예측의 호오도에서 부호조합들 간의 차이에 관한 가설 1은 거절 지지되었다.

부호조합들과 관계종류(즉, p/o , p/x 관계들)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3, 270)=3.97$, $p<.01$), 이 상호작용의 형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는 그림 1의 p/o 와 p/x 관계들의 패턴과 매우 유사하였으며, $++$, $+-$ 및 $-+$ 조합들에서는 p/o 관계와 p/x 관계 예측의 호오도들이 비슷하지만 $--$ 조합에서 두 예측들의 차이가 컸다. 각 조합들 내에서의 두 종류의 관계들 간의 차이점중에서, $++$, $+-$ 및 $-+$ 조합 들에서는 관계종류들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 조합에서 p/o 관계가 p/x 관계보다 예측의 호오도가 유의하게 더 컸다($F(1, 90)=18.20$, $p<.001$). 따라서 다른 부호조합들 보다

$--$ 조합에서 p/x 관계 예측보다도 p/o 관계예측이 더 균형이론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에 따른 예측의 호오도의 차이에 관한 가설 3에 관련된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2, 180)=15.34$, $p<.01$). 예측호오도의 평균치들은 1개나 1명(3.17)과 3개나 3명(3.15)의 조건들보다도 10개나 10명(2.89) 이 중간점수(즉, 3.0)에 더 가까워서, 전자의 조건들에서 긍정도 효과가 더 컸다. 가설 3에 따른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부호조합들의 예측의 평균치 들에서 중간점수(즉, 3.0)를 빼고 각 조합들의 수치들의 절대치들을 평균하였을 때, 1개나 1명($.61$)과 3개나 3명($.62$) 조건들 보다도 10개나 10명 조건($.82$)이 더 극화된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가 클수록 더욱 균형 방향으로 극화된 예측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며, 적어도 10개나 10명의 조건과 1 또는 3의 조건과의 대비에서 가설 3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와 부호조합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6, 540)= 3.11$, $p<.01$), 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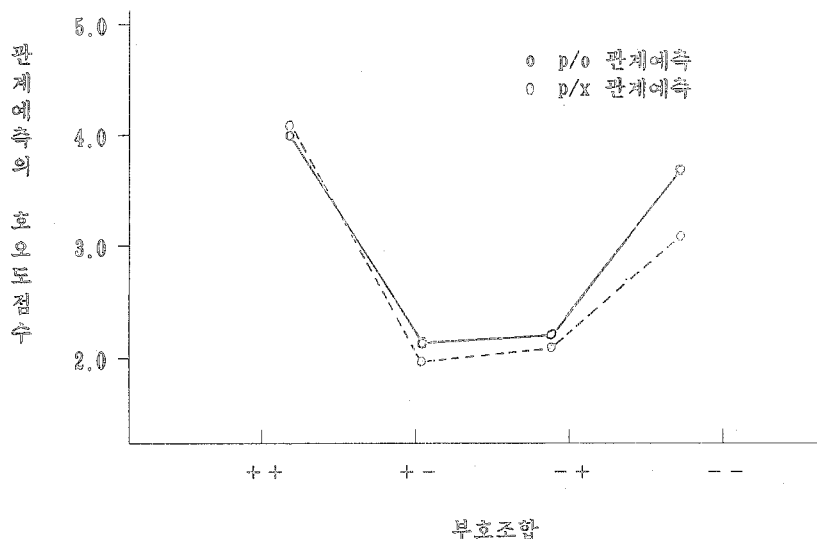


그림 5. 부호조합에 따른 p/o 와 p/x 관계들의 예측의 호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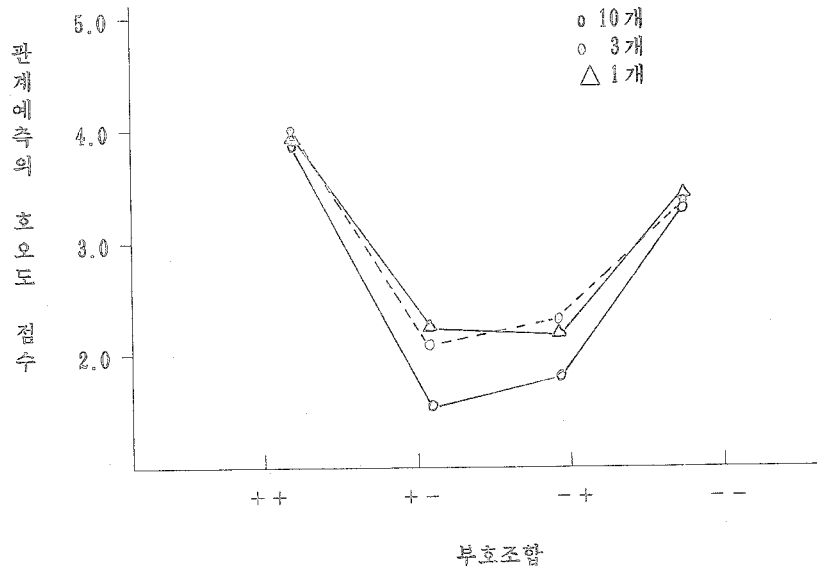


그림 6. 부호조합에 따른 타인이나 대상의 수별 호오도

데는 그림 6과 같다. ++조합과 --조합에서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들에 따른 예측의 호오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에, +-와 -+조합들에서 수들에 따른 큰 차이가 있었다. 부호 조합별로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들 사이의 예측의 호오도의 차이들의 F검증에서 ++와 -- 조합들에서는 차이가 유의치 않았으며, +-조합에서 10과 1 사이 ($F(1, 45) = 27.77, p < .001$), 그리고 10과 3 사이 ($F(1, 45) = 23.52, p < .001$)에서 차이가 유의하였고, 3과 1 사이에서는 유의치 않았다($F(1, 45) = 1.85$). 또한 -+조합에서도 +-조합과 동일하게 10과 1 사이 ($F(1, 45) = 9.30, p < .01$), 그리고 10과 3 사이 ($F(1, 45) = 14.06, p < .001$)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였고, 3과 1 사이에서는 유의치 않았다($F(1, 45) = .28$).

관계의 종류들(p/o와 p/x 관계들)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F(1, 90) = 10.30, p < .01$). 전체 평균치들에서 p/x관계(2.98)보다도 p/o관계(3.16)의 호오도에 예측이 더 정적 극화를 보였다. 따라서 실험 1에서와 같이 p/o 관계 보다도 p/x 관계에서 균형효과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관계의 수와 관계의 종류의 상호작용효

과는 유의치 않았다($F(2, 180) = 1.91$). 관계의 수, 부호조합들 및 관계의 종류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6, 540) = 4.04, p < .01$).

예측의 주관적 확신도

누락된 관계의 호오도에 예측에 대한 주관적 확신도의 평정치들에서 부호조합들,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 및 관계의 종류에 따른 평균치들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 \times 4 \times 3$ 의 반복측정치들의 변량분석 결과는 부호조합의 주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냈다($F(3, 270) = 7.45, p < .01$). 부호 조합들의 평균치들은 ++조합(5.30)이 +- (5.05), -+ (4.87) 및 -- (4.94) 조합들 보다 확신도가 더 컸으며, +-와 -+ 조합들의 평균치(4.96)는 --조합과 유사하였다. ++조합과 +-조합 간의 차이 ($F(1, 90) = 17.69, p < .001$), +-조합 간의 차이 ($F(1, 90) = 17.69, p < .001$), 및 -- 조합간의 차이($F(1, 90) = 10.57, p < .01$)는 모두 유의하였다. +-와 -+ 조합들간의 차이도 유의하였으나 ($F(1, 90) = 4.62, p < .05$), +-와 -- 조합들 간의 차이 ($F(1, 90) = .81$)는 모두 유의치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1의 예측확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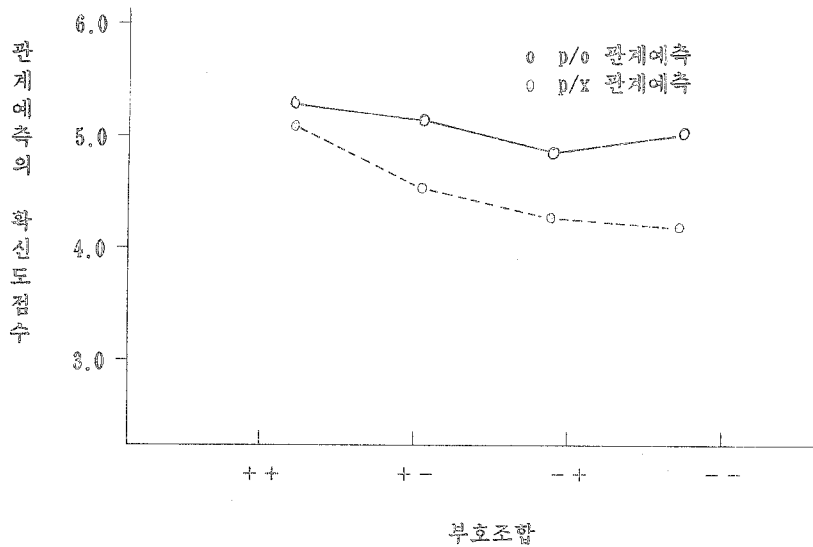


그림 7. 부호조합에 따른 p/o와 p/x 관계들의 예측의 확신도

의 결과보다도 더 가설 1을 지지하였다.

부호조합들과 관계종류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으며 ($F(3, 270)=2.80, p<.05$), 이 상호작용의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실험 1의 그림 3과 그림 7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서, 이 상호작용의 신뢰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p/o 관계 예측의 확신도가 p/x 관계 예측의 확신도보다 더 높

았는데, ++조합에서는 두 관계들 간의 차이가 유의치 않았고 ($F(1, 90)=.59$), +-조합 ($F(1, 90)=7.13, p<.01$), -+ 조합 ($F(1, 90)=6.17, p<.05$) 및 --조합 ($F(1, 90)=15.74, p<.001$)에서는 두 관계들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p/o 관계와 p/x 관계의 예측의 확신도에서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의 차이는 유의하였다($F(2,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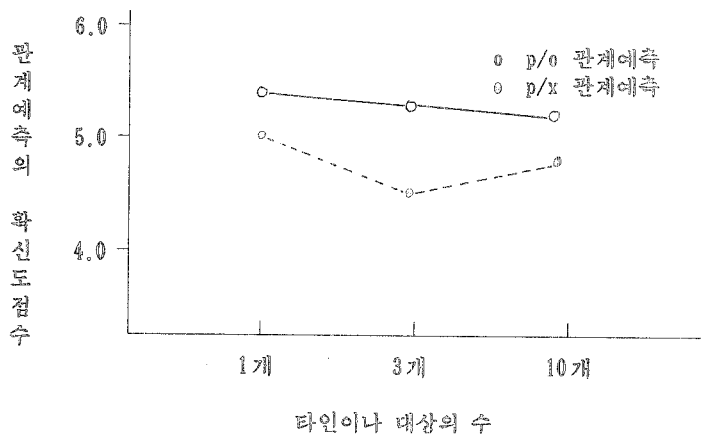


그림 8. 타인이나 대상의 수에 따른 p/o와 p/x 관계들의 예측의 확신도

=4.74, $p<.01$). 예측의 확신도는 1조건(5.16)이 3조건(4.94)과 10조건(5.02)보다 더 높았는데, 1조건과 3조건 간의 차이 ($F(1, 45)=11.29, p<.01$), 그리고 1조건과 10조건 사이의 차이 ($F(1, 45)=4.67, p<.05$)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3조건과 10조건 사이의 차이는 유의치 않았다($F(1, 45)=1.49$). 따라서, p/o 관계와 p/x 관계의 예측의 확신도의 면에서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가 많을 수록 예측의 확신도가 낮았으므로, 가설 3은 지지받지 못하였다.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와 관계의 종류(즉, p/o와 p/x 관계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2, 180)=3.05, p<.05$), 이 형태는 그림 8과 같다. 타인들이나 대상들이 1조건과 10조건에서의 두 관계의 예측의 차이는 3조건에서의 차이보다 더 작았다. 각 조건 내에서의 p/o와 p/x 관계들의 예측의 확신도의 차이검증에서, 1조건에서는 차이가 유의치 않았으며 ($F(1, 90)=3.42$), 3조건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F(1, 90)=17.91, p<.001$), 10조건에서의 차이도 유의하였다($F(1, 90)=6.03, p<.05$).

그림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계의 종류들에서 p/o 관계 예측의 확신도(5.27)는 p/x 관계의 예측의 확신도(4.81)보다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F(1, 90)=58.44, p<.01$). 이러한 결과는 비록 실험 1에서는 차이가 유의치는 않았지만, 실험 1의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그 밖에, 부호조합들과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치 않았으며, 관계의 종류, 부호조합들 및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의 삼원상호작용효과도 유의치 않았다($F(6, 540)=1.67$).

논 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는 실험 1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예측의 확신

도에서 ++조합과 나머지 조합들과의 차이도 유의해서, 이 실험에서는 가설 1이 완전히 지지되었다. 따라서 실험 1과 실험 2의 모든 자료들은 가설 1을 지지하고 있다고 결론짓게끔 해 준다.

부호조합들과 관계의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들도 예측의 호오도와 아울러 확신도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상호작용의 패턴도 실험 1의 결과들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 +- 및 -+ 조합들과는 달리 --조합에서 p/o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는 p/x 예측의 것들 보다 더 균형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신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실험 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합이 p/o 관계의 예측에서는 태도일치의 정적 관계로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p/x 관계의 예측에서는 p/o 관계의 부정성(negativity)과 태도관계의 부정성의 복잡성들 때문에 해석이나 추론이 곤란하였는 데에 기인되었을 수 있다.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에 따른 균형효과의 증가에 관한 가설 3은 균형방향으로의 예측의 호오도의 환산에서 1이나 3보다도 10의 조건에서 더 큰 균형효과를 보였으므로, 지지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의 확신도에서는 1조건보다도 10조건이 확신도가 낮아서 부정되었다.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와 부호조합들의 상호작용효과는 예측의 호오도에서는 유의하였지만, 예측의 확신도에서는 유의치 않았다. 이는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줄 것이다.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와 관계 종류의 상호작용효과는 예측의 호오도에서는 유의치 않았지만, 예측의 확신도에서는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이들 두 종속 변인에서의 어떤 차이를 시사해 주고 있다.

관계의 종류들, 즉 p/o와 p/x 관계들에 대한 전체의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는 실험 1의 결과들과 동일하였으며 p/o 관계가 p/x 관계보다 예측의 긍정도(positivity)가 더 크고 확신도가 더 컸다는 것을 나타냈다.

종합논의

삼원적 사회관계들 중의 누락된 관계의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에서, ++조합은 +-, -+ 및 --조합들 보다도 더 균형 이론의 방향으로 예측의 호오도가 극화되었고 예측의 확신도가 높았으며, 이것들을 실험 1과 실험 2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균형이론과 그 후의 수학적 모형들에서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의 성질차이를 가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결과들은 두 관계들의 성질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앞에서의 가정과 같이, 정적 관계들은 접근과 관심을 일으키고 부적 관계들은 회피와 무관심을 일으킨다는 것이 ++, +-, -+ 및 -- 조합들에 대한 세부적 검토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두 실험의 결과에서 ++조합이 --조합보다 균형적 호오예측과 확신도가 더 높았다. 한편 +-와 -+는 심리적으로 동일한 조합들로 가정되고 있는데, 예측의 균형적 호오도와 확신도에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조합은 -+조합 보다도 두 실험에서 더 균형적 호오예측 점수들을 보였으며 확신도점수들 또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부호들 중에서 앞에 오는 부호들의 상대적 영향의 차이를 나타내 줄 것이다. +보다도 -부호가 앞에 나왔을 때에 피험자들은 더 큰 회피와 무관심 그리고 이것에 따른 더 큰 예측의 불확실감을 나타냈을 것이다. 따라서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에 관한 이러한 결과들은 삼원적 관계들에 대한 유해도 평정들에서처럼 누락된 관계들의 예측에서도 ++조합만이 균형방향으로의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의 삼원적 사회관계들에 관한 이론화에서 각 관계의 정과 부의 성질이 고려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실제로, 삼원적 사회관계 상황의 평정연구들에서는 p/o 관계의 긍정도가 주요 변인으로 취급되어 왔다. p/o 관계의 긍정도효과는 p/x 관계와 o/x 관계에

도 적용되어야만 되며, 이러한 효과가 상황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예; 유쾌도) 뿐만 아니라 인지적 반응(예; 누락된 관계의 예측)에서도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정적 관계는 접근 반응과 관심반응을 일으키고 따라서 관계의 성질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유발 시키고 더 많은 사고를 유발시킬 것이다. 이에 비해서 부적 관계는 회피반응과 무관심반응을 일으키고, 따라서 관계의 성질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유발시키지 않고 일종의 사고중지반응을 유발시킬 것이다. 앞으로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에 대한 그리고 정적 관계의 조합들과 부적 관계의 조합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나 반응시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정과 부의 관계나 관계들의 성질 차이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부호조합들과 관계종류들(즉, p/o, p/x 및 o/x 관계들)의 상호작용효과에 관련된 자료들은 ++조합에서는 세 관계들의 예측들이 유사하였지만, 나머지 조합들, 특히 -- 조합에서 세 관계들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것은 -- 조합에서의 세 관계들의 예측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차이를 반영할 것이다. 웅대식(1985)의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삼원적 사회관계의 예측과 같은 인지적 반응들에서는 p/o 관계의 정부와 태도일치도의 두 요인들이 작용되며, -- 조합은 p/o 관계의 예측에서 태도일치를 의미하고, p/x와 o/x 관계들의 예측에서는 p/o 관계의 정부와 아울러 태도일치도에 관한 단편적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관계들보다도 p/o 관계의 예측은 태도일치도의 단일 요인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관계의 부적 성질이나 갈등적 성질은 p/o 관계의 예측에서 최소화되게 되고 따라서 다른 관계들보다도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가 더 높게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인 관계의 강도와 타인들과 대상들의 수의 영향은 관계강도(즉, 강과 약)에서는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의 면에서 지지되었지만, 타인들이나 대상들의 수에서는 예측의 호오도의 면에서 지지되었고 예측의 확신도의 면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예측의 확신도의 면에서 1조건이 10조건 보다도 더 높았던 것은 상황의 단순성이나 사실성에 기인된 것 같다. 즉 10개의 대상이나 10명의 사람에 대한 동일한 정적 및 부적 관계는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지각되는 일이 드물 것이다. 실제의 생활에서는 대개 소수의 예외가 있기 쉬우며, 이런 점에서 실험에서 제시된 상황 자체가 현실성의 면에서 의문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확신도는 1에서 10으로 증가되지 않았을 것이다.

관계강도와 부호조합들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앞에서 논의된 정부 관계의 성질차이에 관한 설명을 더욱 지지해 주는 것 같다.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의 면에서 ++조합에서는 관계강도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지만, --조합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조합에 대한 접근과 사고증가를 나타내고 --조합에 대한 회피와 사고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관계의 강도까지 고려되어서 호오도와 확신도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관계의 종류들(즉, p/o, p/x 및 o/x 관계들)에 따른 예측의 호오도와 확신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두 실험의 결과들에서 예측의 호오도는 p/x관계 보다도 p/o관계와 o/x관계에서 긍정도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 관계들의 예측이 상이한 정신적 기제에 의해 일어남을 나타내 준다. 특히 실험 2에서 p/x관계 보다 p/o관계의 예측의 확신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물에 대한 태도 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고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따라서 예측의 확신도가 더 높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참고문헌

홍대식 (1980). 타인과 대상의 호오강도가 삼자관계

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대식 (1982). 대인관계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사회심리학연구*, 1, 44-77.

홍대식 (1985). 삼원적 사회관계에서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의 역학과 대인관계의 과정. *사회심리학연구*, 2, 61-93.

홍대식 (1988). 삼원적 사회관계 중의 미완성 관계들의 예언에서의 균형효과, 불확실감 및 예언이유들. *사회심리학연구*, 4, 197-211.

Feather, N. T. (1967). A structural balance approach to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effect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3), New York: Academic Press.

Feather, N. T. (1979). Organization and discrepancy in cognitive structures. *Psychological Review*, 78, 355-379.

Fuller, C. H. (1974). Comparisons of two experimental paradigms as tests of Heider's balance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802-806.

Heider, F. (1946). Attitude and cognitive organ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21, 107-112.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Newcomb, T. M. (1953).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60, 393-404.

Newcomb, T. M. (1959). Individual systems of orientation.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Vol. 3). New York: McGraw-Hill.

Newcomb, T. M. (1971). Dyadic balance as a source of clues about interpersonal attraction. In B. I. Murstein(Ed.), *Theories of*

- attraction and lo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rice, K. O., Harburg, E., & Newcomb, T. M. (1966). Psychological balance in situations of negative interperson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265-270.
- Shepard, R. N., Hovland, C. I., & Jenkins, H. N. (1961). Learning and memorization of classifications. *Psychological Monographs*, 75, (Whole No. 517).
- Tashakkori, A., & Insko, C. A. (1981).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person perception: Two tests of three balance mode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266-285.
- Wellens, A. R., & Thistlethwaite, D. L. (1971a). An analysis of two quantitativ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Psychological Review*, 78, 141-150.
- Wellens, A. R., & Thistlethwaite, D. L. (1971b). Comparison of thre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82-92.
- Wiest, W. M. (1965). A quantitative extension of Heider's theory of cognitive balance applied to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Monographs*, 79 (40).

Variables Related to the Predictions of Missing Relation in the P-O-X Triads

Dae-Shik Ho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influences of positive and negative sign-combinations, strength of relations and the number of other persons and objects on the likableness of relation and subjective certainty of predictions in the missing relations were studied. In the two experiments, ++ combination showed greater balance-oriented likableness of prediction and greater subjective certainty of predictions than +-, -+ and -- combinations. In the -- combination, the greater balance effect was obtained in the prediction of p/o relation than in the prediction of p/x and o/x relations. The stronger the strength of the relation, the greater the balance-oriented likableness of prediction was obtained. The differences in the likableness and subjective certainty of predictions as a function of strength of the relations were greater in +-, -+ and -- combinations. Number of other persons and objects in the triadic structures increased the balance effect in the likableness of relations and did not influence the subjective certainty of predictions. As a whole, predictions of p/o and o/x relations showed greater positivity effect than the predictions of p/x relation and subjective certainty of prediction was greater in the prediction of p/o relation than in the prediction of p/x relat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differences in the propertie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 It was argued that the positive relation will elicit approach and attentive responses and thought-increasing responses on the relation and the negative relation will elicit avoidance and disattentive responses and thought-stopping responses on the relation.